
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7. 28.(수) 배포</p>			
보도일	<b>2021. 7. 28.(수) 11: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b> <b>인터넷·방송·통신 7. 28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</b>				
담당과	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	담당자	과장	최화식	(☎ 044-203-7141)
			사무관	장명헌	(☎ 044-203-7146)
	교육국제화담당관		과장	김진형	(☎ 044-203-6771)
			사무관	전보애	(☎ 044-203-6766)
	대학학사제도과	과장	안웅환	(☎ 044-203-6249)	
		사무관	노현정	(☎ 044-203-6613)	
	전문대학지원과	과장	김 석	(☎ 044-203-6899)	
		사무관	조정휘	(☎ 044-203-6406)	

## 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·관리 방안

- ◆ 외국인 유학생 입국 단계별 보호·관리 조치 지속 시행
  - 14일간 자가격리 및 코로나19(PCR) 검사 3회 실시
  - 자국 내 온라인 수강 활성화 등을 통한 입국 지연·분산
- ◆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유학생 보호·관리 강화
  - 전 국민 70% 백신 1차 접종 완료 후 입국 유도
  -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방역관리 지원
- ◆ 2021학년도 1학기 동안 유학생 3.4만 명 입국
  - 자국 내 온라인 수강 활성화 등으로 코로나 유행 전인 2019학년도 1학기 대비 입국 유학생 82% 감소
  - 해외 입국 유학생으로 인한 대학-지역사회 추가 감염사례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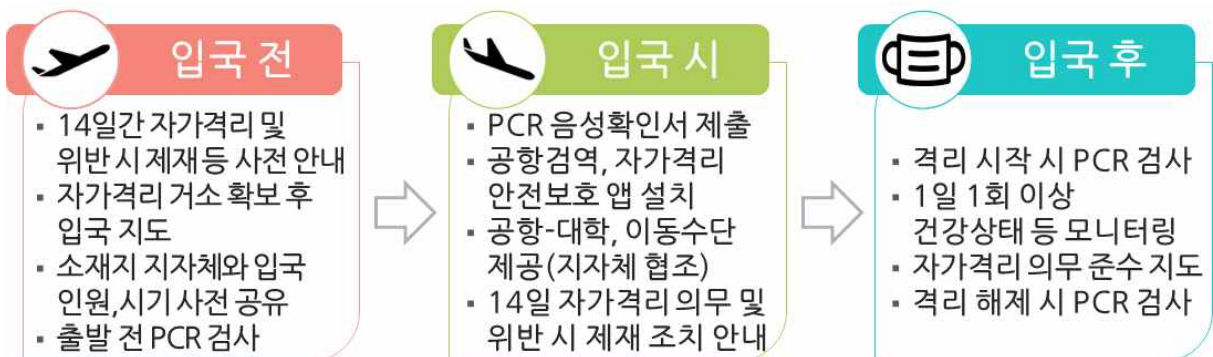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국내외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고자 **2021.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·관리 방안**을 추진한다.

○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보호·관리한 경험을 살려, 이번 2학기에도 **정부-대학-지자체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방지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할 계획**이다.

# 1

## 유학생 입국 단계별 보호·관리 지속 시행

- 지난해 2월 중국유학생을 시작으로 해외입국 상황변화에 따라 보완·강화해온 '입국 단계별 보호·관리방안'을 지속 시행한다.
  - 유학생 입국 전, 자가격리 및 학사 일정에 대해 안내하고 공항 출발 전 자국에서 코로나19(PCR) 검사를 하게 하여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.
  - 입국 시, 코로나19(PCR)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유학생 전용부스(서울시와 공동 운영)에서 방역수칙 등을 안내받은 후 자가격리 거소로 이동한다.
  -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보건소에서 2차 코로나19(PCR) 검사를 시행하고, 자가격리 기간(14일) 종료 전 3차 코로나19(PCR)를 실시하여 결과가 음성일 때 격리를 해제한다.



- 이와 함께 유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자국 내 온라인 수업을 적극 지원하고, 유학생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\* 연장, 원격수업 이수 시 해당국 학위 인정 등을 추진하여 입국시기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.

\* 학위과정 유학생이 원격수업 등 사유로 미입국 시, 비자 취소 없이 유효기간(3개월) 내 입국 허용

- 아울러 대학별 유학생 입국 시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여,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추진하며,
- 대학 기숙사 1인 1실, 임시격리시설, 자가(自家)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적극 지도한다.

## 2

## 변이 바이러스 대응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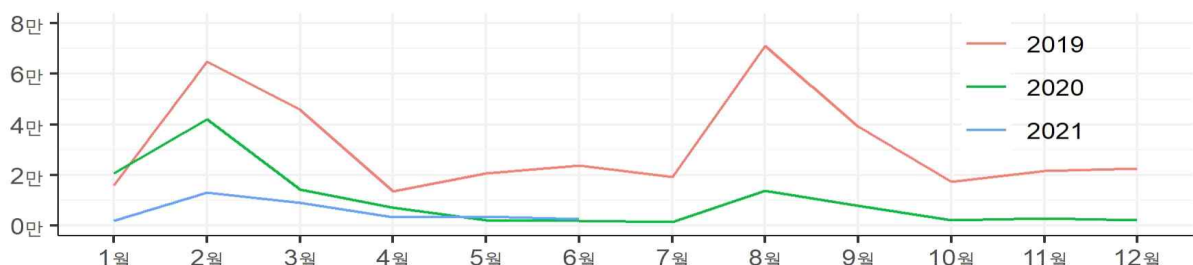
-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(8월 26개국) 유학생에 대한 보호·관리를 강화한다.
  - ※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(8월) : 남아공, 말라위, 보츠와나, 모잠비크, 에스와티니, 짐바브웨, 방글라데시, 브라질, 수리남, 파라과이, 칠레, 우루과이, 필리핀, 인도, 인도네시아, 아랍에미리트, 우즈베키스탄, 베트남, 네팔, 러시아, 레바논, 말레이시아, 아이티, 앙골라, 쿠웨이트, 트리니다드·토바고
- 해당 국가 유학생은 자국 내 원격 수업, 학사 편의 제공 등을 통해 전 국민 70%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입국하도록 유도한다.
- 학사일정으로 인해 그 전에 입국하는 유학생은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학교 밖 자가격리시설(지자체 지정 임시생활시설)이나, 학교 시설(동선 분리 기숙사 등)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를 권고한다.
- 그 외에도, 1일 2회 이상 건강상태를 점검(모니터링)하고, 보건소 이동 시 다른 국가 학생과 동선을 분리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며,
  -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근로 장학금(업무 보조) 등을 활용하여 유학생 모니터링 인건비, 방역 물품비, 수송비 등을 지원한다.
  - 아울러 각 대학의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 외국인 유학생 보호·관리 노력을 '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' 평가 지표에 반영 할 계획이다.

## 3

## 외국인 유학생 입국 및 확진자 발생 현황

- 2021학년도 1학기(1~6월)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.4만 명으로, 자국 내 온라인 수강 활성화, 기 입국 외국인 유학생 방학 중 출국 자제 등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전인 18.5만 명(2019학년도 1학기 기준) 대비 82%가 감소하였다.

※ '20.1학기 8.8만 명 대비 61% 감소



연도	학기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소계	합계
	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	
2019	1	15,994	64,757	45,801	13,523	20,702	23,818	184,595	375,657
	2	19,169	71,128	39,247	17,414	21,568	22,536	191,062	
2020	1	20,593	42,065	14,209	7,150	2,192	1,860	88,069	118,462
	2	1,511	13,719	7,889	2,117	2,851	2,306	30,393	
2021	1	2,046	13,164	9,011	3,324	3,510	2,771	33,826	33,826

□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국한 유학생 3.4만 명 중 총 255명(국내 감염 제외)이 확진되었으며, 공항 검역에서 33명,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222명이 확진되었다.

※ 방글라데시·파키스탄 각 25명, 미국 24명, 프랑스 19명, 러시아·나이지리아 각 15명, 인도네시아 12명, 인도·우즈베키스탄 각 10명, 그 외 국가 100명

○ 다만 전용 교통수단 제공(대학-지자체 협력), 코로나19(PCR) 검사 강화, 대학 현장지원 등으로 유학생으로 인한 학내-지역 추가 전파사례는 없다.

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지난해 2월 중국유학생을 시작으로 1년 반 동안 외국인 유학생 보호·관리에 힘써주신 대학과 지자체에 깊이 감사드린다.”라고 전하며,

○ “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만, 올 2학기 중에는 대학의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대학-지자체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”라고 당부하였다.

